

# 1881년 어윤중이 쓴 「담초(談草)」의 특징과 대담에 나타난 한· 중·일의 정세

김기엽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한문학전공  
sinchay@hanmail.net

- I. 머리말
- II. 1881년 「담초」의 서술 특징과 구성
- III. 청(淸)·일(日) 관료의 대담에 나타난 주요 현안
- IV. 조(朝)·청(淸)의 일본 견제 양상
- V. 맺음말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I. 머리말

19세기 후반 중국과 일본에 이어 조선에 강하게 밀려든 서구 열강의 압박으로 조선 조정은 국가 존립을 위한 부국강병과 개화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조선의 상황에 맞는 개화를 위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서양의 신문물을 시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고종은, 당시 위정척사라는 반대 여론을 피해 유람을 명분으로 지식인들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한다.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은 이 때 파견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일원으로 개화 후 일본의 국정과 발전상을 살펴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財政)·경제(經濟) 정책을 시찰했던 인물로, 이후에 일본에서 천진(天津)으로 건너간 뒤 청국(淸國)의 개화정책을 살펴면서 이홍장(李鴻章) 및 주북(周馥) 등을 만난 후에 다시 일본을 거쳐 귀국하였다.

어윤중의 필담(筆談)은 1882년 10월에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로 임명되어 1883년 2월에 청(淸)의 장석란(張錫鑾), 왕률(汪栗), 진본식(陳本植) 등과 나눈 대담이 기록된 「경략사여중국위원오담초(經略使與中國委員晤談草)」·「경략사왕중강여동변병비도진본식오담(經略使往中江與東邊兵備道陳本植晤談)」·「경략사여진본식오담초(經略使與陳本植晤談草)」가 있다. 장서각에 소장된 「담초(談草)」는 이보다 앞선 1881년에 일본과 청을 오가면서 당시 청(淸)·일(日)의 외교 담당 인사들과 나누었던 대담을 어윤중이 직접 기록한 것이다. 어윤중은 조선을 대표하는 사절 인사이자 초기 개화 사상가로서 개혁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그가 1881년에 작성한 「담초」에서 청·일을 대하는 당시 조선의 입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청·일 두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인사들과 나눈 대담이 기록된 이 「담초」는 조선의 눈에 비친 양국의 정세를 비교하기에 좋은 자료가 된다.

이 연구는 어윤중이 남긴 「담초」들을 비교하여 1881년 「담초」의 서술적 특징을 밝히고 각 일자에 따른 담화 내역에 당시 조(朝)·청(淸)·일(日) 삼국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을 살피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어윤중 연구의 사료적 근거가 되는 또 하나의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그동안 일본 시찰 내역이나 여정(旅程), 사상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던 어윤중의 연구를 보다 다양한 관점과 방향에서 살펴보려 한다.

## II. 1881년 「담초」의 서술 특징과 구성

### 1. 찬자(撰者)와 서술 특징

1881년 「담초」의 찬자(撰者)로 추정되는 어윤중은 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주장한 박규수(朴珪壽)의 영향을 받은 초기 개화파의 한 사람이다. 1869년 21세의 나이로 문과 병과에 입격하여 승정원의 가주서(假注書)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고 박규수 이하 김홍집(金弘集), 김윤식(金允植), 박정양(朴定陽), 김옥균(金玉均), 홍영식(洪英植) 등의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개화파는 개항 및 개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국을 맞이하게 된다. 7년에 걸친 흥작에 개항장의 쌀값 폭등 위기와 일본 상인의 횡포는 개화파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작용했지만, 어윤중은 1877년 전라도 암행어사로 7개월 간 각 고을을 두루 다니고 민생 진작과 폐정 개혁을 위한 12개 조의 시무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고종의 인정을 받는다.

이후 1881년에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으로 일본을 시찰하고 중국 천진으로 가서 청의 개화정책을 살펴보면서 이홍장 및 주복 등을 만나고 돌아왔으며, 이듬해에 문의관(問議官)으로 청국(淸國)을 오가면서 미국·영국·독일과 통상수교(通商修交)를 논의하고 돌아왔다. 1894년 갑오개혁 기간에는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과 박정양내각(朴定陽內閣)에서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이 되어 일본에서 보고 들은 재정 사안을 바탕으로 재정·경제 부분의 개혁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896년에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인해 내각이 붕괴되자 일본 망명을 거절하고 고향 보은으로 피하던 중 피살된다.

이 논문에서 다룬 「담초」는 편찬자와 편찬시기에 관한 정보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어윤중의 「종정연표(從政年表)」에 표기된 여정과 회담자를 대조해보면 「담초」의 날짜와 인물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sup>1)</sup> 「담초」는 1881년에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된 어윤중이 일본과 청국의

1) 한임선, 위의 논문에서 『견문록(見聞錄)』·『종정연표(從政年表)』의 일정과 회담 인물 정보를 토대로 「담초」의 편자가 어윤중임을 밝힌 바 있으며, 필자 역시 그 견해에 동의한다.

인사들과 나눈 대담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본문 첫 부분은 참찬관(參贊官) 황준헌(黃遵憲)의 대답으로 시작된다.

황준헌은 주일(駐日) 청국 공사(公使) 하여장(何如璋), 부공사(副公使) 장사계(張斯桂)와 함께 동경에 참찬관으로 머물던 중에, 다른 조사(朝士)들을 전송하고 돌아온 어윤중을 만나서 남은 체류 기간을 묻고 서둘러 귀국한 홍영식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였다. 어윤중은 40-50일 더 머무를 것이라 답한 뒤, 귀국한 홍영식과 다른 조사(朝士)들의 안부를 전하였다.<sup>2)</sup> 「종정연표」에 기록된 여정과 황준헌이 조선으로 먼저 귀국한 홍영식 및 다른 조사(朝士)들의 안부를 묻는 「담초」의 내용을 참조해 볼 때, 7월 21일에 조선으로 먼저 돌아가는 조사(朝士)들을 전송한 어윤중이 그 다음 달인 윤7월 1일부터 「담초」를 쓰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3)</sup> 「담초」는 조사(朝士)들이 돌아간 이후의 일본 정황이 드러나 있고, 청·일 양국 인사들과 나눈 대담이 모두 실려 있어 양국을 대하는 입장 차이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인 가치를 가진다.

「담초」의 본문은 상내향흑어미(上內向黑魚尾)가 인쇄된 12행(行)의 사주단변(四周單邊) 공책지에 행서(行書)로 필사(筆寫)되어 있다. 한 행은 대략 20자 내외로 적혀 있으며, 필사의 특성상 글자의 크기에 따라 불규칙적인 글자 수로 작성되어 있다. 서술 방식은 달과 날짜가 바뀌는 부분은 대개 장을 달리 하였고, 대화의 주체가 바뀔 때마다 행을 바꾸어 기록하였다.

찬자표기나 서문(序文) 없이 “閏七月初一日 黃參贊晤談”으로 본문이 시작되며 11월 4일의 대담이 마지막에 실려 있다. 격자(隔字)나 대두(擡頭)는 사용하지 않았고 작성 시기에 따라 필체의 차이를 보인다. 대담자(對談者)의 표기에 있어서 어윤중 자신은 ‘아왈(我曰)’, 청국인(淸國人)의 경우는

2) 「談草」 4면: “黃曰: 未審先生, 句留, 尙有幾何日? 我曰: 當以四五十日爲準. 黃曰: 甚好甚好. 洪公恩恩遂歸, 非僕所料. 每以未得傾瀉彼我之懷爲恨. 僕聞其歸, 卽欲走送, 而是日車駕, 遂發殊憾. 此行同伴十數人, 大概歸去, 不知趙·李諸君子, 比來時議論如何. 我曰: 洪君亦以恩恩爲恨, 同來者, 多歸航, 勢難更留, 未免徑歸.”

3) 『魚允中全集』 「從政年表」 812면에 “7월 21일에 요코하마에 가서 함께 왔던 재공들이 먼저 귀국하는 것을 전송하였다.[七月二十一日. 往橫濱, 送同來諸公先歸]”라고 되어 있다. 「從政年表」와 「談草」를 근거로 한 기존 연구에서 7월과 윤7월을 구분하지 않음으로 인해 텍스트에 기술된 날짜와 어윤중의 여정 및 행력이 일부 중복되거나 어긋난 경우가 보인다. 여기서는 1881년 7월에 어윤중이 요코하마까지 가서 조사(朝士)들을 전송한 후, 다음 달인 윤7월에 도쿄에서 「談草」를 기술한 것으로 보았다.

성(姓)을 써서 ‘황왈(黃曰)’ 또는 ‘하왈(何曰)’로, 일본인의 경우는 모두 ‘피왈(彼曰)’이라 하였는데 정서(正書)되지 않은 양상이나 기술 형태에서 아직 공시(公示)하지 않은 초고임을 알 수 있다.

閏七月二十八日黃君來贊晤談  
 黃曰君者天下有守都官之行僕遠使之齊送  
 國書數種并訂期未得參差石過為悵昨辱  
 過訪適又公事繁冗未及倒屣至歎今日君甚  
 來獲不為之至  
 我曰君者有賜書登圖印俱恨來承覽而即  
 尚趨謝之一不暇有此意故而未敢問當一二進  
 公署品拜何大人而未敢拜先生處以為悵同往  
 洪君以臨館直君出拜何大人破清湯於先生道  
 本日人未暇為清以為恨若生自來東土官  
 官時趨於十為倫為此事所迫而未使心為如  
 傾何幸由此光為感甚

經畧使與中國委員晤談草  
 張曰中東語言不同守義亦間有異此次  
 奏明于中江交易准其兩國遵民隨時往來執事當  
 日在天津條議經北洋大臣核定章程第五條  
 內原有俟會商踏勘籌議是宜本其各省原奏  
 與北洋章程互參變通酌為商議并條條議如不  
 與官負主持不設商務委員等見當待而商並無  
 國執總期妥善期毋久遠也因出示議稿  
 議曰第一條不田官負主持云罷除向日馬市  
 之例外不設商務委員聽是民隨時往來交易務

자료1-1881년 「담초」 첫 면

자료2-1883년 「담초」 첫 면

어윤중의 「담초」 중에 초고와 정서(正書)한 원고의 구분은 그가 1883년  
 에 서북경략사로 활동하면서 기록한 「경략사여중국위원오담초」·「경략  
 사왕중강여동변병비도진본식오담」(2월 25일)·「경략사여진본식오담초」  
 (2월 26일)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경략사여중국위원오담초」는  
 청국 대표 장석란(張錫鑾), 진본식(陳本植), 왕률(汪粟) 등과 중강무역장정  
 (中江貿易章程)을 체결하면서 통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회담 내역과 조항이 기록된 것이다.<sup>4)</sup>

1883년의 「담초」는 장석란이 한 말을 ‘장왈(張曰)’로 어윤중의 말을

4) 「중정연표(從政年表)」에 따르면 어윤중은 1883년 2월 10일 의주에 도착하여 개시(開市)의 일로 봉황성 동변병비도(鳳凰城東邊兵備道) 진본식(陳本植)에게 글을 보냈고, 2월 13일에 중강(中江)을 건너 통화현(通化縣) 지현(知縣)인 장석란(張錫鑾), 안동현(安東縣) 지현인 기령(耑齡), 위용통판(委用通判) 왕률(汪粟) 등과 회동해 개시의 일을 논의하였다. 2월 17일에 설류관(雪柳館)으로 가서 장정(章程)을 상의하였고, 2월 25일에 중강(中江)으로 가서 무역 등의 일을 의논하였으며, 2월 26일에 설류관으로 가서 진본식, 장석란, 기령, 왕률 등과 오담(晤談)하였다.

‘어왈(魚曰)’로 구분하되, 측소자(側小字)로 성(姓)을 표기하고 대상을 높이는 형식인 격자와 대두를 사용하였다.<sup>5)</sup> 1883년의 「경략사여중국위원 오담초」와 1881년의 「담초」가 필사 형식에 있어서 다른 양태를 보이는 것은 「경략사여중국위원오담초」가 담화 내용을 재정리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1883년 필담 비교에서 드러난 서술상의 차이는 1881년의 「담초」가 정서(正書)되지 않은 초고로, 참조나 정리에 앞선 텍스트임을 방증한다.

한편 「중정연표」 1881년 12월 14일 기록에 어윤중이 고종에게 복명하면서 올린 문건에 관한 대목이 나온다. 어윤중이 다녀온 여정과 일본과 중국의 정황을 전반적으로 보고하면서 올렸던 「서계(書啓)」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계(書啓)」를 올리기를…(일본 시찰 내역)…제신들이 모두 배로 돌아갔사온데 신은 재주가 둔하고 식견이 없어서 보고 들은 것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몇 달을 머물렀다가 도로 나가사키에서 서쪽으로 건너가 중국 상해로 가서…(중국 시찰 내역)… 상해에서 나가사키에 당도하여 다시 부산항에 정박하여 육지로 올라왔으며, 「대장성사무(大藏省事務)」와 「재정견문(財政見聞)」을 책자로 만들어 을람(乙覽)하시도록 준비하였습니 다.<sup>6)</sup>

이 「서계」에서 조사(朝士)들이 귀국한 뒤에 계속 일본에 남았던 정황, 중국을 다녀온 여정, 복명 시 「일본대장성직제사무장정(日本大藏省職制事務章程)」·「재정견문」을 올렸던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어윤중은 12월에 복명(復命)하면서 시찰단원으로서 본인이 맡았던 대장성(大藏省) 시찰과 재정 정책 탐구에 관한 시찰록(視察錄)을 별도로 올렸다. 앞서 밝힌 필사 양식뿐만 아니라 이 「서계」의 내용에 의거해서도 이 「담초」가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7)</sup>

5) 『魚允中全集』 453-470쪽.

6) 『魚允中全集』 「從政年表」, 121-124쪽(전집, 813-816쪽): “모書啓……諸臣, 皆後先歸航是白乎矣, 臣則才鈍識淺, 無所見聞是白乎故, 仍留數月是白如可, 還從長崎, 西渡至中國上海, 見蘇松太兵備道劉瑞芬, 往江南機器製造總局, 觀造礮槍軍火, 更付中國招商局輪船, 到天津, 見直隸總督李鴻章海關道周馥 更從航路. 由上海抵長崎, 還泊釜山港登陸是白乎矣, 大藏省事務及財政見聞, 另成冊子, 以備乙覽是白齊.”

7) 어윤중이 올린 「서계(書啓)」와 관련하여 『어윤중전집(魚允中全集)』에 어윤중의 저술로 실려 있는 「동래어사서계(東萊御史書啓)」의 찬자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허동현(2001)은 이미 「동래어사서계」를 어윤중이 아닌 이현영(李鎰永)의 저작으로 분류하였다. 『조사시찰단체자료집』 12, 국학자료원, 577-578쪽) 연구자 역시 『어윤

## 2. 1881년 「담초」의 구성과 내용

「담초」는 윤 7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모두 16회의 담화로 구성되어 있다. 윤7월-8월까지 일본에서 이야기를 나눈 인물은 황준헌, 하여장,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요석은 등으로 재정 상태, 신문 매체, 통상 및 관세에 관한 현안을 주로 논의하였다.

어윤중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임무를 마치고 다시 일본을 통해 귀국한 기간인 9-11월의 기록에는 이흥예(李興鏡), 유서분(劉瑞芬), 당정추(唐廷樞), 여경(余璦) 등 양무파(洋務派) 관료들을 만나 서양의 기술, 인재 양성, 부국강병 및 자강(自強) 등을 논의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담초」는 날짜의 경과에 따른 대담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날짜에 따라 기술된 「談草」의 내용

차례	날짜 및 대담자	내 용
1	윤 7월 1일 동경(東京) 주재(駐在) 청국 참찬관 황준헌	황준헌에게 받은 도서(圖書) 및 일본에서의 일정을 언급하고, 일본 육군 참모생도 이동(伊東)이 비개항지(非開港地)에 미음대로 들어온 사건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 신문의 정황을 논한 후, 북경 사관(使館)에 부속된 총병관(總兵官)이 맹약(盟約)을 요청한 사실 및 조선과 청국 인사들의 현황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2	윤 7월 14일 동경 주재 청국 공사 하여장	하여장에게 조선으로 먼저 귀국한 인사들의 안부를 간단히 답하고, 부산의 통상 지역에서 대마도 사람과 구포(九浦) 사람이 일으킨 소동과 나라별 신문의 효용성, 중국의 부강과 푸저우(福州: 복건성의 선정국(船政局), 강무(講武)와 쇄국, 재정의 최선책 등을 논하였다.
3	윤 7월 15일	상야(上野)의 지정(池亭)에서 황준헌을 만나 대담하였다. 어윤중의

증전집』의 「동래어사서계」에 실린 「별단초(別單草)」·「문견록(聞見錄)」·「해관총론(海關總論)」과 이현영의 『일사집략(日槎集略)』에 실린 「별단(別單)」·「문견록(聞見錄)」·「해관총론(海關總論)」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동래어사서계」에 기재된 건문 내용이 여름 절기까지 서술되어 있음을 참조할 때 「담초」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동래어사서계」는 같은 해 여름에 조선으로 먼저 돌아갔던 이현영의 기록으로 추정된다. 결국 「동래어사서계」는 어윤중이 쓴 것이 아니며, 그가 복명 시 올렸던 서계는 「동래어사서계」가 아니라 「중정연표(從政年表)」에 기록된 「서계(書啓)」와 비슷한 내용일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이현영이 고종에게 올린 『일사집략』의 「별단」에 일부 착간(錯簡)이 있고, 『일사집략』의 「문견록」·「해관총론」과 『어윤중전집』에 실린 「동래어사서계」의 「문견록」·「해관총론」에 일부 구절의 이동(異同)이 보이므로, 당시에 귀국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간에 개별적으로 기술해 둔 시찰 기록을 종합하거나 공유했을 가능성도 함께 열어둔다.

	황준헌	수원으로 와서 일본에 유학하는 윤치호(尹致昊)에 대하여 평을 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일본 한학자 및 신문사 관계자를 소개받았다. 군수물자의 매매를 담당했던 대창(大倉)과 병기 구매에 대한 사안, 대마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 각 나라 별 국지(國志) 및 해관세(海關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4	윤 7월 18일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조선 주재 일본 공사로, 그가 일본에 있을 때 어윤중이 찾아가서 만났다. 그와 부산 절영도(絶影島)의 군사 주둔에 대한 입장 표명, 군정(軍政) 및 일본 무리배(無賴輩)들의 쟁투, 부산에서 경성으로의 진입 허가 등을 이야기하였다.
5	윤 7월 28일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어윤중이 이노우에 가오루의 집에 찾아가서 대담하였다. 일본의 협조를 약속하면서 조선의 문화개방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 조선과 일본의 통상과 관세법, 구포의 소동에 대한 일본측의 변론으로 부산과 원산의 세관에서 벌어진 조선 군인의 횡포 등을 거론하였다.
6	8월 1일 하여장	하여장을 방문하여 그에게 이노우에 가오루와 부산, 원산의 세관과 세액 결정 권한 및 통상 규례에 대하여 논한 내용을 알려주었다. 하여장은 외국 상민(外國商民)과 세권(稅權)의 자주(自主)를 강조하면서 외국의 통상 사례와 세칙(細則) 규례에 대하여 조언하고, 세칙 논의를 신중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7	8월 22일 하여장, 황준헌	주일 청국 공사(淸公署)를 방문하여 공사관(公事官) 하여장과 참찬관 황준헌을 만나 일본의 국회 상황 및 국제 정세 파악을 위한 신문의 필요성, 영국·프랑스·러시아의 동향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부국강병의 강조, 영국과 러시아의 울릉도(靑島) 침략 우려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8	8월 22일 (위와 같은 날짜) 이노우에 가오루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가서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윤중이 귀국 인사차 들러서 대화한 내용으로, 국제 관계에서 고립을 피하고 침탈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노우에 가오루는 조선과 만국의 통상을 권고하였다. 개화를 반대하는 수구파(守舊派)에 대한 평과 양병(養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화의 득실을 논하였다.
9	8월 23일 하여장	하여장이 내방(來訪)하여 어윤중의 중국행에 따른 각종의 편의를 문보위원(文報委員) 왕송삼(王松森)을 통해 준비해 두었다는 말을 하였다. 천진의 초상문보국(招商文報局)에 서신(書信)을 보내는 일과 중국 개항장의 외국인 거주 구역 근처의 유람 및 용화제조국(龍華製造局), 천진신성(天津新城)의 훈련 병영 방문을 권유 받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
10	9월 4일 고베(神戸) 주재 청국 영사(領事) 요석은(廖錫恩)	료석은은 조선의 통상에 관하여 불합리한 절차로 인해 손해를 받은 청국의 전철을 밟지 않고, 주체적인 통상 권한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일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기록 이후로는 상해에 도착한 이후 중국의 주요 인물과 대담한 내용이다.
*	도상해후(到上海後)	「담초」 52면, 19일에 해당하는 장의 첫 머리에 '상해에 당도한 이후'라는 메모가 적혀있다.
11	9월 19일 안무사(安撫使)	이흥에는 군사에 대한 사무에 밝고 서양의 기예에 대한 식견이 탁월했던 인물로, 어윤중을 찾아와서 서양의 기술을 본받아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일과 해외 유학생의 서양 기예 습득 현황 및 귀국

	이홍예	후 활용 방안, 조선과 청국의 연합이 절실한 시기에 천하 각국과의 연합 문제, 인재양성 등을 논하였다.
12	9월 22일 전운사(轉運使) 유서분	유서분은 청국의 외교관으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의 공사관을 지낸 인물로, 어윤중과 문안 인사를 마치고 미국과 이탈리아 국서를 조선이 받지 않은 일과 서양의 기술을 배워 자강(自強)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13	10월 8일 당정추	당정추는 윤선(輪船), 철로 등의 사무에 해박한 인물로 양무 운동(洋務運動)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어윤중은 윤선의 제조 및 구매, 상업에 관한 사무, 광산에 대한 업무, 수송선 및 병선(兵船)에 대하여 그와 논의 하고 미국 유학생과 유럽으로 유학 간 대학생 20여명의 현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14	10월 22일 고참린(高駘麟)	배에서 고참린을 만나 이야기하였다. 고참린에게 조선이 문학(文學)으로 이름났지만 평안, 함경과 같은 북쪽 지역은 사람들의 무력이 뛰어나며, 지세까지 갖추어 전쟁에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어윤중은 겸손의 말로 응대하였다. 또 무기와 군대에 대한 논의 중에 서양인을 초청하여 배우기보다는 서양 방법을 익힌 중국인을 통해 배우는 편이 폐단이 적을 것이며, 타국에 비해 양병 시기가 늦더라도 체계적인 훈련을 적용한다면 일본을 앞설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다.
15	10월 23일 이육림(李毓林)	배에서 이육림을 만나 이야기하였다.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외침을 막기 위한 군사력을 증진시킬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실질적인 학문을 익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또한 청·미 연태조약(烟台條約)의 진행과 청국 내부의 주요 무관의 현황 및 병법 운용 방식, 유학과 학생들의 실태, 청국과 통상하는 각 나라별 현황, 소설(小說)과 경사(經史), 조약 원고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6	11월 4일 나가사키(長崎) 이사(理事) 여경(余璠)	여경이 내방하자, 어윤중은 이사(理署)에 배속된 인원, 급료, 중국 상인의 현황, 일본의 세칙 개정에 대하여 문의하고 「대동강(大同江) 시를 보여주었다. 여경은 외국의 횡포에 대하여 언급하고 사신과 장수의 재능을 모두 갖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예(禮)가 있으면서 군사력까지 갖추어져 있다면 천하가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였다.

「담초」는 날짜순에 따라서 대담자 및 대화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8월 22일의 기록에 따르면 어윤중은 이날 청·일 양국의 인사를 모두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 청국 공사관을 방문하여 하여장과 황준헌을 만나 일본의 국회 상황과 영국과 러시아의 울릉도 침략 우려에 대하여 이야기 한 뒤,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가서 귀국 인사를 하고 조선의 개화에 대하여 논하였다.

9월 19일 이홍예의 대담 첫 면에 보이는 ‘도상해후(到上海後)’ 메모를 통해, 9월 4일 고베 주재 청국 영사 요석은을 만난 것은 상해로 이동 중 고베를 거쳐 가던 길이었으며 11월 4일 나가사키 이사 여경을 만나서

대담한 것은 청국에서 일본을 거쳐 귀국하던 도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종정연표」에는 10월 6일 주복을 만났고 10월 10일 이홍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어윤중이 1881년에 영선사 김윤식(金允植)과 합류하여 이들과 회담했다고 알려진 것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그 근거로 첫째, 「종정연표」에는 1881년 9월-11월 사이에 조병연과 이조연을 비롯하여 청국의 인사까지 시찰 중 조우했던 인물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sup>9)</sup> 주요 인물인 김윤식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시기적으로도 1881년 10월 10일 이홍장을 만난 후 천진을 떠나 10월 24일 상해에 도착한 어윤중과<sup>10)</sup> 11월 말에야 이홍장을 만난 김윤식이 함께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셋째, 결정적으로 김윤식과 이홍장의 대담이 기록되어 있는 「천진담초(天津談草)」에 이홍장이 어윤중에게 천진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간 어윤중을 만났는지를 묻자, 김윤식이 ‘도중에 소문은 전해들었지만 어윤중과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홍장에게 분명하게 밝힌 부분이 보인다.<sup>11)</sup> 어윤중은 10월 중에 이홍장과 만난 적은 있으나 김윤식이 당도하기 전 별도로 만났고, 어윤중이 조선으로 떠난 뒤에야 김윤식이 이홍장을 만나 회담을 했던 것이다.

이 1881년의 「담초」에는 이홍장 및 주복과 나눈 대담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천진담초」의 내역에 따르면 이홍장과 어윤중은 당해 연도에 이미 두 차례 대담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이홍장은 김윤식에게 어윤중이 외교를 잘 알고 있었으며, 천진에서 외교 등의 일을 두 번 논해 본 결과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평하였다.<sup>12)</sup>

1881년의 「담초」에 이홍장과 나눈 대담이 빠져 있는 것은 자칫 조선에 불리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은 부분을 은폐하려는 어윤중의 주관적

8) 어윤중의 여정은 「종정연표(從政年表)」에 잘 나타나 있다. 일본에서 청으로 건너간 9월의 기록에 따르면, 1일에 고베에서 조병호(趙秉鎬)와 이조연(李祖淵)을 만났고, 6일에 배를 타고 고베에서 나가사키로 출발하여 9일에 나가사키에 도착하였으며, 10일에 나가사키에서 상해로 출발하였다. 청에서 일본을 거쳐 귀국한 11월의 기록에는 1일에 상해에서 나가사키로 출발하였고, 7일에 나가사키에서 수신사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귀국하여 10일에 부산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9) 『魚允中全集』 「從政年表」, 120-121쪽.

10) 위의 책, 121쪽.

11) 김윤식, 「天津談草」 1881년 11월 28일 대담: “問: 魚允中逢於何處? 對: 夏間往游日本, 姑未復命. 問: 間已由津回國, 何以不逢? 對: 在途雖聞風傳, 一路曾未相遇.”

12) 김윤식, 「天津談草」 1881년 11월 28일 대담: “問: 魚允中論外交事明白, 頗有聲望否” 위의 자료 11월 30일 대담: “中堂曰: 魚允中在津接晤, 兩次論外交等事, 甚詳. 據云歸告國王矣”

인 의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를테면 청국 인사들과 나는 대담에서 ‘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자처하거나 인정하는 부분은 추후 수교에 있어서도 불리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홍장은 김윤식에게 ‘예전에 어윤중과 함께 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상정(商定)했고, 어윤중이 귀국하여 이미 고종에게 이 점을 고했을 것’이라고 전하였다.<sup>13)</sup> 이홍장의 이 주장은 조선이 개화기에 자주를 표방하고 독립국가임을 내세우는 데에 크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어윤중의 「담초」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담초」가 어윤중 개인이 정리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의 사건이 반영되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담초」에 실려 있는 일·청 양국의 인사들과 나는 대담기록을 통해 두 나라에 대한 어윤중의 태도를 살피고, 기타 시찰기록에 드러나 있지 않은 정황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 Ⅲ. 청(靑)·일(日) 관료의 대담에 나타난 주요 현안

#### 1. 청국 관료와 나는 대담

어윤중은 주일 중국 외교관들과 함께 일본의 개화 방식 및 서구 문물 수용 양상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는 일본에서 개화 이후의 정황을 살피고 이를 전철(前轍)로 삼아 조선의 개화 정책에 반영하고 국제적 손실을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 1) 재정 정책과 군사력

어윤중은 개항 중 무리하게 진행된 열강과의 일방적인 통교로 인해 국가적인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막부의 실정이 조선에 재연될 것을 우려하였다. 주일 참찬관으로 동경에 머물면서 어윤중을 만난 황준헌<sup>14)</sup>은 일본이 예전 개화할 때 혼란하였으나 예전과 지금은 상황이

13) 김윤식, 「天津談草」 1881년 12월 26일 대담: “中國屬邦, 前已與魚允中商定. 彼必回奏耳.”

14) 황준헌(黃遵憲, 1848-1905): 자는 공도(公度), 호는 인경려주인(人境廬主人)이다. 이

다르고 또 조선과 일본의 정세나 처지가 다르므로 굳이 일본의 위기를 조선에 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는 외교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15)</sup>

조사사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의 재정·경제 정책 분야 시찰을 담당한 어윤중은 개화 후 일본의 재무(財務) 현황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일본의 재정과 민간의 외채(外債)를 거론하며 동경(東京)에 머물고 있던 주일 청국 외교관들에게 일본의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다. 하여장<sup>16)</sup>은 서양의 재정 정책을 활용할 때는 자국의 역량을 헤아려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급선무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sup>17)</sup>

하여장: 그 재정의 실책(失策)은 원인이 어수선한 개화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실책은 없고 오직 재정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더욱 가소롭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적에 신문을 보니 매번 개화를 매우 빨리 한 것을 자랑하더니, 작년 이후로 이 정책의 잘못을 깨닫고는 논의가 모두 옛 풍습을 쇠국(鎖國)을 통해 다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다른 것은 전철을 거울삼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 사람들이 충고해주는 말을 제군(諸君)들이 이를 따라 미루어 살핀다면 요령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당시 주일 청국 공사(駐日清國公使) 하여장(何如章)을 따라 참찬관(參贊官)으로 일본에 있었다. 앞선 1880(고종17)에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일본에 갔을 때 김홍집과 국제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주장을 적은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을 전해준 적이 있다.

- 15) 「談草」 7면, 「閏七月初一日 黃參贊晤談」: “我曰: 此邦於所謂維新前, 不獲已許外交, 而上焉則不能駕御人才, 下焉則不能講求善政, 遂致一國瓦解, 此可爲前鑑, 故每思之, 深憂之. 黃曰: 日本前事則然矣, 然今昔不同, 情勢不同, 壤地不同, 不能遂引爲貴國危也. 雖然, 變更政體, 爲從古絕難之事. 欲求其安安穩穩, 絕無毫末之患, 則實未易言. 僕於貴國, 爲首倡外交之人, 每論此事, 輒謂宜慎者, 意即在此也. 所望貴國, 當道內體國情, 外度世變, 以不可移易之志, 行循序漸進之政, 則庶乎其可也.”
- 16) 하여장(何如璋, 1838-1891): 청나라 말기의 외교관으로 호는 자아(子峨)이다. 1877년 초대 주일 공사로 임명되어 3년 간 공사로 도쿄(東京)에 있었는데 이 때의 부공사가 황준현이었다. 청나라로 돌아온 뒤에는 복주(福州)의 선전대신으로 임명되었으나 청불 전쟁 당시의 마강 전투 때 장패륜 등과 후퇴하면서, 패전의 책임을 지고 면직 당하였다. 저서로는 일본에 머무르면서 메이지 유신을 지켜본 기록과 평가를 담은 『사동술략(使東述略)』이 있다.
- 17) 「談草」 15면, 「十四日 何公使晤談」: “若參用新法, 則近於外治之事, 無寬猛可言. 大要量力爲之, 勿使金錢流出, 爲第一義, 舍此則可爲皆謬矣. ……何曰: “其財政之失策, 即在開進之紛紛. 若云他無失策, 惟財政未得, 其言尤爲可笑也. 僕初來時, 觀其新聞, 每自誇甚開進之速, 自去年來, 知此策之失, 所論皆欲稍保舊習以閉, 他爲主義前車之鑒. 自是此邦人忠告之言, 諸君由此推察之, 得其要領矣.”

하야장은 어윤중에게 무리한 개혁으로 인한 일본의 재정적 실책과 이를 수습(收拾)·만회(挽回)하기 위한 국가적 움직임을 설명하고, 국가 경영의 난항을 겪어 본 일본 인사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어윤중이 국제 정세를 논하면서 부국강병책으로 군사력의 증대를 강조하자<sup>18)</sup> 하야장은 열강(列強)들과 통상(通商)을 하더라도 불평등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군사력의 증대를 통해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무력을 기르기 위해 서양 기물을 도입하는 한편 국내 자본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것을 제안하였다.

오늘날과 옛날의 상무(尙武)가 다름을 밝히고, 새로운 방식의 군함과 화기를 보유하기 위한 금·은과 같은 자본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군사력 증대를 위한 대책은 시찰단의 일원인 어윤중에게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이를 구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본의 확보는 재정을 담당한 어윤중이 크게 관심을 두고 있었던 영역으로 훗날 김홍집 내각에서 탁지부대신으로 재정 개혁안을 주관하는 데에 밑거름이 된다.

8월 23일의 대담에 내방한 하야장을 통해 중국행에 따른 각종 편의를 협조 받는 내용이 보인다. 이때 어윤중은 상해와 천진까지의 여정에 필요한 제반(諸般) 사무들을 지원받고, 청에서 시찰할만한 장소를 안내 받았다. 이 점은 어윤중이 이미 일본에 있을 때, 주일 청국 외교관을 통해 청 시찰을 권유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8월 23일 어윤중은 문안 인사를 마치면서 하야장에게 중국 개항장의 외국인 거주 구역 근처를 유람할 것과 용화제조국(龍華製造局), 천진신성(天津新城)의 훈련 병영을 방문할 것을 권유받고 이어서 그가 소개해준 문보위원(文報委員) 왕송삼(王松森)의 지원을 받기로 하고<sup>19)</sup> 상해로 이동한다.

## 2) 실학과 교육

어윤중은 이홍예와 나눈 대담에서 고리타분한 유학(儒學)을 지양하고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학문의 실용성을 추구하였다. 실용적인 학문을

18) 「談草」 12면: “願今日局勢, 尙武之外, 更無方便. 小邦果亦留心於此, 恨無奮發之勢.”

19) 「談草」 50면: “僕當函屬文報委員王, 代閣下招呼一切也. ……文報委員王, 名松森號如心如係, 兼辦此間函件之員, 住在招商輪船總局內. 將來閣下到申, 即先往該處, 屬王君代覓旅寓及一切之事. 又將來往天津, 亦令王君代搭安便, 輪船赴津, 并由王君致信天津招商文報局, 代閣下招呼一切, 便無不妥. 此等曲折, 僕當於致王君函中詳悉記之. 函具即由閣下帶去. 至於商局位址, 當于函面詳”

갈구한다고 해서 유교의 이념이 담겨 있는 경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다음은 이흥예<sup>20)</sup>가 방문하여, “성현의 경전은 도리어 시기에 적절한 서양의 책만 못하니 탄식할만합니다.”<sup>21)</sup>라고 한 말에 어윤중이 답변한 내용이다.

성현의 경전은 수 천 년 전의 말과 일이니 어찌 오늘날에 부합하겠습니까? 훗날 성인의 학문을 배우는 자들은 그 마음을 잘 본받을 수 있지만 고루한 선비들은 그 자취에 빠져서 변통할 줄 모르니 이 때문에 오늘날의 변화가 있어도 진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인의 ‘격물(格物)·치지(致知)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근본이 된다.’는 말은 진실로 실천할 수 있으니, 격물·치지의 공부를 실제의 일에서 구해보면 증기선과 차의 전자학이나 광학(光學)입니다. 저는 앞선 유럽인에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한갓 실체가 없는 성리설이나 글을 짓고 외우거나 하는 학문에만 종사하고 그치겠습니까? 쫓쫓. 제가 제일로 생각하는 진리는 옛사람의 목은 자취만 구해서는 안 되고, 생활에 적용되는 법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마다 진정을 깨달아서 변통하는 데에 어렵지 않게 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sup>22)</sup>

이흥예가 말한 유학이 고루하다는 성격에 일정 부분 수긍은 하면서도,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격물·치지가 실제로는 유럽에서 연구 개발한 증기선, 차의 전자학, 광학과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역설하였다. 어윤중이 비판하고자 하는 유학은 실체 없는 학문에 몰두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문과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유교 경전이 시대에 뒤쳐진 것이 아니라 이를 배우고 활용하는 학자들이 현실과 괴리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어윤중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의미의 ‘격물(格物)’과 앎을 지극히 한다는 ‘치지(致知)’를 당대의 실학에 적용하면, 전자(電子)·광학(光學)과 같은 물리적인 학문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

20) 이흥예(李興銳, 1827-1904): 호남(湖南) 류양(瀏陽) 출신으로 자는 면림(勉林)이다. 광서 개원 때 상해 기기제조국(上海機器製造局) 설치를 건의하여 1872년부터 상해 기기제조국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서양의 기예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여 철도, 선박 등 서구 문물을 널리 도입하였으며, 1897년에 복건성 안찰사를 역임하였다.

21) 「談草」 52면: “李曰:……聖經賢傳, 反不如西書之切中時宜, 可嘆可嘆.”

22) 「談草」 52면: “我曰:……聖經賢傳, 是數千年前, 言語事爲, 豈可合於今日乎? 後來學聖人者, 可師其心, 拘儒泥於其迹, 不知變通, 所以有今日之變而不能振也. 只聖人言 ‘格物致知爲治平之本.’ 果能實踐, 格·致之工, 實事求之, 汽船·車電學·光學. 我可先歐人得之. 奈何徒從事於虛無性命詞章記誦之學而止? 咄咄, 我之第一義諦, 不可徒求古人之陳迹, 用活潑法, 事事認真, 不難於變通而後, 乃可耳…….”

같은 맥락에서 어윤중과 이홍예는 옛것에만 얽매이고 현실을 부정하는 고루한 선비들의 공론(空論)을 비판하였으며,<sup>23)</sup> 문장만 능사로 여기고 실효성이 없는 과거제도를 혁파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팔고문(八股文)<sup>24)</sup>과 팔운시(八韻詩)로 인재를 선발하는 청의 과거제도는 문에만 숭상하는 큰 병통으로 이를 인재를 녹여버리는 화로(火爐)에 비유하기도 하였다.<sup>25)</sup> 그러나 이런 대화들은 모두 유학이나 경전(經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문예(文藝)를 숭상하는 풍조나 과거제와 같은 제도적인 범주의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이육림에게도 경전을 통한 교화보다는 외세(外勢)에 대비하기 위한 자강(自強)을 위해 서책을 던져버릴 것을 언급하였지만<sup>26)</sup> 이 역시 시의(時宜)에 맞는 부국강병을 위한 유용한 학문에 힘쓰자는 의도로 말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육림이 소설을 꺼내 보여주자 어윤중은 오히려 유학자의 입장에서 소설의 폐해를 지적하고, 성현의 글과 경사(經史)에 대한 실제적인 학문을 중용하였다. 유학경전의 실용성을 주장한 것은 유학을 배척하기만 하고 신문물의 추종을 강요한 일부 인사들과는 달리, 개화사상가로서의 남다른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서양으로 파견된 유학생들의 성취와 생활태도에는 관대한 입장을 보여주었으며, 기에 습득의 어려움을 들어 이홍예와 이육림에게 유학생의 조기 환국을 만류하고<sup>27)</sup> 사교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육림: ……때문에 나라에서는 현재 장두(將頭) 두세 명과 학생(學生) 6, 70명을 모두 돌아오게 하고, 수사, 전보, 수뢰, 기기 등 각 학당에 나누어 파견하여 옛 것을 이어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어린 아이로서 12, 13세 때 떠나 지금 장성하여

23) 「談草」 56면: “李曰: ……挾書生皮氣泥, 古不通今者, 一派迂闊議論, 甚是害事. ……”

24) 팔고문(八股文): 문예를 숭상하는 폐단을 대표하는 제도를 지칭한 것으로, 팔고문은 명·청 시대에 과거시험의 답안에 사용한 특수한 문체를 말한다. 사서오경(四書五經) 가운데에서 출제(出題)한 장구(章句)의 뜻에 대해 대구법(對句法)을 사용하여 8단 구성으로 논술하는 것이다. 팔고문의 고(股)는 대우(對偶)를 뜻한다.

25) 「談草」 59면: “我曰: 僕嘗曰 ‘革科舉而後, 人才可興.’ 中州之科舉, 已是大痼疾也. 尙文術, 暗鑠人才之鑪也. 李曰: 八股八韻, 是人才一大蠹. 中國坐是弊, 能改絃更張, 則善矣.”

26) 「談草」 78면: “我曰: 大教, 切中時宜, 敢不書紳. 今日局勢, 即一大戰國也. 非自強自立, 是以其國子敵也. 文人不知時宜, 徒欲強爲大談, 是固不足與論. 我兩國之人, 可拋書卷, 而從事於富強有用的學.”

27) 인재 육성에 관한 부분은 한임선, 허동현의 논문에서 이미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20여 세인 자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외국의 여성과 사귀며 왕래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언관(言官)이 이 일을 논하였는데, 또한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윤중: 그들의 기예를 배우고자 한다면 십 수 년을 소비하지 않으면 실제 공부를 배울 수 없습니다. 어찌 어린 아이에게 5, 6년 내에 성과를 거두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명 사람들의 정력을 소비하여 얻은 것이니, 쉽게 배워 얻을 수 없을 듯합니다. 또 젊고 예쁜 여인을 좋아하는 것은 인자상정이니, 설령 여류들과 사귀는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조행(操行)에는 훼손되는 점이 있을지언정 어찌 실용을 추구하는 전체 형세에 해가 되는 점이 있겠습니까?<sup>28)</sup>

교육에 있어서는 활동성을 증시한 개방적인 태도와 실용을 추구하는 어윤중의 인식이 엇보인다. 청에서는 서구 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어 서양의 기예를 익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었는데, 이육림은 이 유학생들이 자라서 외국 여성과의 연애에 한 눈을 팔고 성취를 소홀히 할까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 어윤중은 젊고 예쁜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연애가 실용적인 학문을 익히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 3) 선박과 상업

선박과 상업에 관한 대답은 주로 당정추<sup>29)</sup>와 이루어졌다. 어윤중과 당정추가 말한 상업이란 현대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개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차원이 아니라, 거대자본을 들여서 하나의 업체를 경영하는 사업 또는 기업 운영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다. 때문에 상업(商業)의 실례(實例)로 수송선(輸送船), 은행(銀行), 철로(鐵路), 전보(電報) 등의 규모를 갖춘 시설을 거론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확보에 대해 논하였다.

당정추는 개인이 준비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본전이 있으면 상업을 혼자 경영하는 것이 좋지만, 자본금이 부족하므로 서양처

28) 「談草」 83면: “故國家現將頭二三批，學生六七十名盡數撤回，分派水師電報水雷機器各學堂，仍舊習學，蓋因幼童自十二三歲去，至今長成二十餘歲者，有之，與外國女流，多有結識往來，故言官論之，亦不爲無見。我曰：欲學他技藝，非費十數年，實地工夫，不可學得，豈可令幼童，於五六年內，責其成效？彼費數百年數千人精力而得之，恐不可易易學得。且慕小艾人之常情，設有結識女流之弊，在渠操行，則有損矣。何損於大局實用乎？”

29) 당정추(唐廷樞, 1832-1892): 초명은 당걸(唐杰), 자는 건시(建時), 호는 경성(景星)·경심(鏡心)이다. 광동성 향산현(香山縣) 사람으로 양무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다. 1873년 李鴻章의 추천으로 윤선조상국(輪船招商局) 총판(總辦)이 되었고, 당서철로(唐胥鐵路)를 개통하였다.

럼 여러 사람의 자본을 모아 공동으로 경영한다고 하였다.<sup>30)</sup> 비록 이익은 적지만, 완전히 망하는 일은 면할 수 있다는 안정성을 근거로 다수의 자본가들과 공동 경영을 주장하는 어윤중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sup>31)</sup>

서법(西法)을 꺼리면서도 선진 문물을 인정하여 이를 자국의 기술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은 양무파 관료들의 일반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sup>32)</sup> 당정추도 배를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좋지만, 비용과 품질이 우수한 영국에 부득이하게 조선(造船)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력과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정추는 어윤중에게 조선과 청이 공동으로 조선소(造船所)를 설치하고 자본가들을 모아 자국(自國)에서 직접 배를 제조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일본의 경제정책을 시찰하고 청에서 당정추의 제안을 받았던 어윤중은, 조선으로 복귀한 뒤에 정부가 거대 자본가와 결합하여 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였다.<sup>33)</sup> 이는 일본 정부가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와 같은 재벌 기업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상업 활동의 장려를 통해 산업 진흥을 추진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무기를 매매하는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를 두고 황준헌과 이야기한 대목이 있다.

어윤중: 오쿠라 이 사람은 무기 파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편부(便否)를 따지지 않고 서양의 병기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지금은 손실을 만회하려고 또 오쿠라 무리들에게 매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나라에게 강병을 급선무로 해야 한다고 말해놓고서, 나중에 그들에게 쌓여있는 무기를 사도록 권한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스스로 이롭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유독 심하여 남들이 뺏속을 들여다보듯 환히 알게 하였습니다. 들으니 서양 사람을 중개인으로 삼아 대부분 중국에 가서 팔았는데 모두 예전에 제조한 것이어서 오늘날 쓰기에 알맞지 않았다고 합니다.<sup>34)</sup>

30) 「談草」 73면: “唐曰: 大約經商, 如有本錢, 還是自己獨辦爲是, 緣自己辦自己事, 未免格外認真. 輪船局需, 本甚多. 且當時各人, 都不放心, 故不得不仿西法, 招股以期衆擎易舉.”

31) 「談草」 73면: “我曰: 經商之道, 集衆共辦, 最得宜. 雖利薄, 可免永壞, 久久得力, 自可見效. 西人之事, 每不謀目下小利, 所經營之事, 必進進不已, 所以乃收終效. 此意可深認得力.”

32) 초상국의 일로 어윤중과 논의했던 李興鏡도 이와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談草」 53면: “效西法以圖自強, 原是下乘文字. 願今別無他法, 祇好順勢利導, 以俟氣機之轉. 耻不可忘, 氣不可餒, 臥薪嘗膽, 自強之本.”)

33) 허동현, 「魚允中, 『수문록』·『재정건문』, 『韓國史市民講座』(2008), 118쪽.

오쿠라 기하치로(1837-1928)는 외국에서 철포를 수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무역업을 시작한 인물이다. 무진 전쟁(戊辰戰爭) 때 메이지 정부 측에 철포를 팔아 정치가들의 신뢰를 얻고, 유신 이후에 무역업과 토목, 건축업을 겸하다가 1873년 10월에 오쿠라구미 상회(大倉組商會)를 설립하는데 이는 뒷날 재벌 무역회사로 성장하여 총독부 신축 및 경복궁 철거에 관여하기도 한다. 어윤중은 조선에 군사력 증대를 강조한 일본의 속셈이 바로 오쿠라를 내세워 쓸모없는 무기를 팔아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임을 간파하였다. 이에 황준헌에게 조선과 중국을 상대로 오래된 무기를 팔아 이익을 취하려는 일본을 경계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주일 청국 인사들과의 대담은 부국강병과 관련한 내용 외에 개화 후 일본의 정세나 문물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어윤중이 일본을 시찰하면서 일본 관료보다 청국 관료와 일본의 실정을 논한 대목이 많은데, 이런 양상은 자국에 대한 주관이 개입되기 쉬운 일본 관료의 평가를 멀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3자들이 일본을 보았던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 2. 일본 관료와 나는 대담

어윤중과 일본 관료와의 대담은 관세(關稅)나 절영도(絶影島)의 군대 주둔 등 직접적인 사안을 다룬 내용이 많다. 이는 일본 관료의 입장에서 시찰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어윤중과의 대담을 통해 조선의 개항에 대한 사안을 시급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 1) 절영도의 군사적 활용

어윤중은 윤7월 18일에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sup>35)</sup>]를 만나서 절영

34) 「談草」, “我曰: 大倉, 則此人, 以販軍器爲業, 而此邦人, 不究便否, 多買西國軍物. 今也, 欲補所失, 又使大倉輩, 售賣. 故先言弊邦, 當以強兵爲先務, 其後請買在渠之所貯軍器. 人孰不欲自利, 此邦人爲尤甚, 使人如見肺肝. 聞以洋人爲媒多去售於中國, 而皆是舊製, 不合於今日云.”

35)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1842-1917): 1871년 9월 조선 대리 공사료 부임하였고, 1880년 변리 공사가 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서울에 있던 일본 공사관을 탈출하여 영국 군함을 타고 나가사키[長崎]로 탈출하였다. 같은 해(1882년)에 8월 10일에 일본 병력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돌아와 8월 30일에 임오군란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조선 정부와 제물포 조약(濟物浦條約) 6개조 및 조일수

도와 군사 훈련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어윤중: “어제 신문에 공이 우리나라의 절영도(絶影島)를 요구하였지만 우리나라가 허락해주지 않았다는 일이 실렸는데 어떻게 공표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까? 이미 저보에 실렸으니, 비록 우리가 유람객이지만 한마디 말은 해야겠습니다. 공께서 일찍이 이 말을 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 큰 실언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의 의견입니까?”

하나부사가 기가 꺾인 채,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우리가 어찌 이 말을 독단적으로 꺼냈겠습니까? 이것은 귀국에서 우리가 군사를 훈련시키고 배를 수리하는 것을 보고 군정에 도움이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보에 실린 것은 바로 귀국이 해당 섬에 진영을 설치한 것을 보고 억측한 것입니다.”<sup>36)</sup>

어윤중은 유람객의 입장이지만 부산 남쪽에 위치한 절영도의 군사적 활용을 두고 일본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로 지적하였다. 수신사가 아니라 ‘유람객(遊客)’이라고 자칭한 것은 1881년에 일본으로 파견된 조사사찰단이 조선 내 조야(朝野)의 척사 운동으로 인하여 공식사절이 아닌 일본 유람을 명분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이다.<sup>37)</sup>

조선 시대 동래부(東萊府)에 속한 가장 큰 섬이었던 절영도는 목마장(牧馬場), 신사(神祠), 어장(漁場), 가왜관(假倭館)이 있었는데, 말이 달리면 그림자가 끊어질(絶影) 정도라 하여 명마로 유명했던 이곳은 진(鎭)을 설치하기 전까지 국가의 주요 목마장으로 사용된 곳이었다. 이후 조선후기 들어 외국 선박이 출현하면서 부산항의 출입구라는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시하지는 논의가 일어났고 외세에 대비하고 개항장을 지키기 위한 국방상의 필요 때문에 1881년에는 절영도 중리(中里)에 수군첨사(水軍僉使)의 진을 설치하면서 부산의 포이(包伊), 개운(開雲),

---

호조규 속약 2개조를 체결하였다.

36) 「談草」, 「閏七月十八日 往見花房義質」: “我曰: 日昨新聞紙, 載公之請我絶影島, 而我邦不許之事, 此何至於公布乎? 既載郵報, 我雖一遊客, 可一言之, 公之曾發此言, 於我邦萬萬失言. 此出於政府乎? 公之意見乎? 彼氣沮低答曰: 我豈專發此言, 此欲貴國之觀我練兵修艦, 而有助於戎政故耳. 發於郵祇, 是見貴國之設鎭於該島而臆料也.”

37) 당시 조선에서는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1880년에 가져온 황준헌(黃遵憲)의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이 소개되었고 이를 통해 개화의 움직임이 적극성을 띠게 되자, 일본과 교류를 반대하는 유생들의 척사(斥邪) 의식이 이만손(李晩孫)을 소수(疏頭)로 한 척사만인소(斥邪萬人疏)로 표출·전개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찰단원(視察團員)들도 비공식 사절의 성격을 띠고 ‘동래암행어사(東來暗行御史)’의 명을 받아 부산으로 이동 후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서평(西平) 3개의 진을 혁파하였다.<sup>38)</sup>

위의 인용문은 절영도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일본이 군사적 활용을 위한 개입을 시작하자 어윤중이 국가적인 시안으로 지적한 것이다. 개항기 부산에 일본인의 거주가 증가하면서 일본은 절영도에 불법적으로 병막(病幕)을 설치하였으며, 석탄 저장소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이후에 청나라와 영국이 부산에 영사관을 설치하면서, 1898년 러시아도 절영도에 석탄 저장소 설치를 청원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때부터 절영도의 군사적인 활용에 대한 쟁점이 부상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윤중은 일본보다 조선의 군사 정책이 뒤떨어지므로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배우는 방식에 있어서 조선이 일본의 교관을 고용하여 조선의 연병장에서 교련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본의 주도에 의해 조선이 일본에 가서 배우는 방식은 주객이 전도된 양상이라 충고하였다.<sup>39)</sup>

하나부사의 말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해군 생도가 훈련하는 것을 조선이 참고하도록 하여 군정을 시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해군생도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절영도에 일본의 군사를 배치하려는 것은 추후에 일본의 해군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된 일이다. 일본의 해군을 조선의 인근 섬에 주둔시키는 것은,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의 항해자가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도록 한 해안 측량권과 같은 성격의 군사적 침략을 위한 발판이라 할 수 있다.

## 2) 거류지 문제와 구포 쟁투 사건

어윤중은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에게 절영도의 군사 활용 문제에 이어서 일본인 거류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내지에 들어온 이토히(伊東)의 일을 이야기하였다.

---

38) 金康植, 「개항기 해양도시 부산의 絶影島嶼 설치와 운영」, 『역사와경계』 제90집(부산 경남사학회, 2014).

39) 談草, 「閏七月十八日 往見花房義質」: “我邦海陸軍制, 有遜於貴國, 善者固可學耳. 我若延貴邦海陸軍教士, 開場教鍊 自我主之, 則可耳. 貴國雖欲教我自來主之, 而使我來學, 則不可. 是主客失地也.”

전에 이토가 우리 복장으로 바꿔 입고 내지에 몰래 들어온 일이 있었는데, 이제 또 무뢰한 귀족의 백성 수 백 명이 무리를 이루어 무기를 잡고 소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지금 거의 정의와 신용으로 서로를 믿고 있는데 무지한 무리들이 이런 변괴를 만들고 있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백성들이 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sup>40)</sup>

조선인 우병연(禹秉延)이 이동(伊東)이라는 일본인을 조선인으로 위장시켜 개항장을 벗어나 대구로 가던 중에 양산에서 붙잡혔는데, 일본인이 거류지를 벗어나 내지에 들어왔다는 것은 한 지방의 작은 사건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규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었다. 조선에서는 이 일로 우병연을 좌수영에 압송하여 처형하도록 하고, 이 사건을 등문(登聞)하지 않았던 해당 지역의 부사를 추고하기도 하였다.<sup>41)</sup>

개항장을 중심으로 무역 시장이 형성되고 일본 정부의 묵인 아래 거류 일본인의 수가 급증하자, 일본인 거류지는 무역공간을 넘어서서 종교·교육·의료시설을 갖춘 거주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일본의 거주민 이주를 통한 조선 내지의 거주지 확보정책에 대비하여 조선은 「조규」를 통해 제한된 공간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활동 거리를 규제하고, 일본 정부가 조선을 시장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곡령(防穀令)을 실시하기도 한다.

거류 일본인들과 일본 정부가 내지로의 통행 허가를 요구한 것은 거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설정된 미곡의 무관세와 이에 따른 혜택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조선 상인과 일본 상인의 물품 교환을 통해 조선의 시장에 참여하여 무역에서 실리를 얻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0) 「談草」, 「閏七月十八日 往見花房義質」: “前有伊東之換裝我衣, 潛入內地之事, 今又有無賴貴民數百成群持兵仗, 作鬧之舉. 我兩國今幾誠信相孚 而無知之類, 生此變怪, 事甚駭歎. 從此我民益生疑懼, 爲害不淺.”

41) 『승정원일기』 고종 18년 5월 22일 기사: “又以統理機務衙門言啓曰: 卽見東萊府使金善根所報, 則枚舉梁山郡守移文, 以爲行止殊常漢二名, 捉致究問, 則一是大邱人, 一是日本人, 而我國人禹秉延, 本以邪徒遺踪, 今春入倭館, 留宿於伊東倭處, 而彼倭, 欲學邪學, 願作同行於大邱, 故換着朝鮮衣樣, 到梁山, 以至被捉云, 而禹漢之潛通異類, 做此變怪, 論其罪狀, 合有當律, 爲辭矣. 禁斥邪學, 朝飭本自嚴重, 而日昨別下諭教, 又復惻怛懇摯, 雖彼木石之頑, 豚魚之迷, 誠可孚而可格矣. 今此禹哥, 卽邪類中年久漏網之漢, 而至於締引隣國之人, 踰越地界之外者, 尤不可但以兇悖論, 觀其供, 則一言自服, 究其罪, 則萬戮難贖, 而所招中, 徒黨諸漢, 爲先嚴飭於各鎮營, 刻期誦捕, 築底鉤馭, 按法鋤治後, 罪人禹秉延, 押送左水營, 令帥臣, 大會軍民, 梟首警衆. 此事所關非輕, 而不爲登聞, 只以修報者, 殊涉不審, 該府使推考, 何如?”

거주지에 체류하는 일본 상인과 조선 상인과의 마찰이 드러난 한 사건은 1881년 양산 구포에서 일어난 조선 상인과 쓰시마 미곡중매 상인과의 충돌로, 당해 여름에 조선 정부가 세곡의 부정 유출을 막고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했던 방곡령이 시발점이 된다. 이로 인해 미리 곡식 값을 지불한 일본 상인의 미곡 회수가 곤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가 곧 구포 쟁투사건으로 표면화 된다. 이는 당시에 일본의 신문에도 실린 사건으로, 하여장과 나눈 대화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sup>42)</sup>

구포는 부산에서 40리 떨어진 곳이며 일본의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영향을 넘어서 지역이었다. 쓰시마 상인 4명이 미곡 납품거래 담판이 잘 성사되지 않자 부산에서 40리나 떨어진 구포까지 가서 조선인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 소동의 발단이 되었다. 이를 본 구포 주민 2, 3백여 명이 쓰시마 상인에게 다시 폭력을 가하였고, 또 이를 전해들은 쓰시마 중매협약사 상인들이 몰려가 조선인에게 보복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일본인의 조선 내지(內地) 침입을 막기 위해 도발적인 행위로 간주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주범으로 구포까지 갔던 쓰시마 상인을 일본의 영사재판관에 의해 처벌하게 된다.<sup>43)</sup>

### 3) 동맹과 세칙 개정

어윤중은 윤 7월 28일에 당시 외무성 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sup>44)</sup>)를 찾아가 외교 현안을 논하였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자신들과 대립 중인 청과 러시아가 조선에 지원을 강요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동맹을 들었다.

42) 「談草」, 「十四日 何公使晤談」: “昨見此處新聞云, 釜山通商地方, 近有對馬人與東萊九浦人作鬪, 其情形如何? 曾得有信否? 僕託茫尙頑健.” 我曰: “釜山事, 未聞的報, 而本國近以旱災過糶. 和館商民, 無所仰賴. 且本邦民受彼人之金, 代辦穀物之商運者, 多在九浦地. 彼人果督運於伊人而向往九浦, 有此爭端, 而彼人素多輕悍之習, 種種有如此事, 可悶.”

43) 아이 사키고,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 연구: (1876-1883)」,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41-46쪽.

44)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6-1915):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에 활동한 정치가이다. 당시 외무경으로 강화도 조약을 주도하고, 후일 전권대사로 내한하여 갑신정변 처리를 위한 한성조약(漢城條約)을 체결한 인물이다.

일찍이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에 틈이 벌어졌을 때에 그 나라의 군함 20여척이 와서 머물렀습니다. 동쪽 바다 청나라 가까운 곳에는 오직 귀국과 일본이 석탄이 쌓여 있고 먹을 양식이 있어 병력을 주둔시키고 병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 일본은 청나라·러시아와 모두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만국공법(萬國公法)에 의거하여 거절할 수 있지만, 귀국은 아직 동맹을 맺지 않고 있으니 곧 하나의 고립된 나라입니다. 피차간에 요구하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형편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부응한다면 청나라가 귀국에게 무어라 하겠습니까? 또 오늘날의 형세는 만방과 연맹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상호간에 견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sup>45)</sup>

일본의 경우 청과 러시아와 모두 동맹을 맺고 있으므로 만국공법(萬國公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워, 어윤중에게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 상호간 견제를 통한 보호를 위해 서구 열강과 연맹을 맺을 것을 권하였다. 어윤중은 이노우에 가오루가 제시한 방식에 대하여 일부 찬성하면서도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조선의 민심을 들어 강제로 동맹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였다.<sup>46)</sup>

어윤중: 참으로 공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에 관심두지 않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민심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에 강압적으로 행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노우에: 민심이 열리기를 기다려 행하는 것은 시간이 없을까 염려되니 한편으로 행하면서 한편으로 민심을 달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윤중: 우리 조선의 사정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외부에 닥쳐서 문을 닫아걸고 접촉하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처하고 응대할 방식을 모르는 것뿐입니다.<sup>47)</sup>

이노우에 가오루는 1880년 김홍집을 주축으로 한 2차 수신사(修信使)가

45) 「談草」, 「二十八日 赴井上馨家」: “曾於中俄構釁之時, 其國軍艦, 二十餘艘來往. 東洋清國近地, 惟貴國與日本, 積煤食料, 按兵調病. 將於我兩國料理, 我邦則與清俄, 俱爲同盟之國, 我惟可據公法而辭之, 貴國未與之爲盟, 卽一孤立之國. 彼此求之而不聽, 則勢不可支. 若副其言, 則清國謂貴國何? 且今日之勢, 莫若聯萬邦, 互與牽制之爲上策.”

46) 「談草」, 「二十八日 赴井上馨家」 27-28면: “彼曰: 貴國尙不信我邦, 雖有籌劃, 未見聽施, 可悶. 曾於中俄構釁之時, 其國軍艦, 二十餘艘來往. 東洋清國近地, 惟貴國與日本, 積煤食料, 按兵調病. 將於我兩國料理, 我邦則與清俄, 俱爲同盟之國, 我惟可據公法而辭之, 貴國未與之爲盟, 卽一孤立之國. 彼此求之而不聽, 則勢不可支. 若副其言, 則清國謂貴國何? 且今日之勢, 莫若聯萬邦, 互與牽制之爲上策, 且以我國論之, 譬如比隣之地, 隣家失火, 則我雖謹於塗墜, 必被其餘災, 所以不憚煩復也. 我曰: 誠如公言. 奈我之不閉外務何? 民心來開, 固不可強行故耳.”

47) 「談草」: “我曰: 誠如公言. 奈我之不關外務何? 民心來開, 固不可強行故耳. 彼曰: 待民心之開而行之, 恐無其日, 莫若一邊做去, 一邊曉諭之爲可耳. 我曰: 我邦之事, 如慕容在外閉戶不接者然. 我不知其接之道, 酒醴之設耳.”

일본과 정했던 관세(關稅)에 대하여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어윤중은 세칙 개정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밝힌 후, 지난 수신사가 관세를 무겁게 매기고자 한 사정을 변론하였다.<sup>48)</sup>

이노우에: 사신이 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관세 약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양국의 백성이 이윤을 목적으로 와서 거래를 트는 것도 또 끝없는 폐단이 많습니다. 만일 관세를 다시 무겁게 매긴다면 필시 상점을 닫고 철수하여 돌아가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귀국이 기어이 세를 무겁게 매기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선 허락하겠습니다만 분란이 생길 때에 가서는 우리 정부에서 어찌 간섭하지 않겠습니까?.....<sup>49)</sup>

어윤중: 관세법은 세금을 이롭게 여겨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용한 물건이 마구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의 쓸모없는 물건이 수입되는 것을 금하고자 해서이니, 경중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sup>50)</sup>

애초에 거류지의 일본인에게 미국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음으로 인해 미국이 무관세로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조선이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조선과 일본의 무역에서 조선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방지하고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무겁게 매기고자 한 조선 정부와 이를 대변하는 어윤중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위 두 사람은 결국 조선과 일본 양국의 입장을 서로에게 전달하고,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절충하는 것으로 대화를 마무리 하였다. 이노우에의 세칙 개정 요구에 전권(全權)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는 대목에서 전권대신의 자격이 없는 비공식 사절의 입장이, 일본의 빠른 개항 추진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선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

48) 「談草」, 「二十八日 赴井上馨家」 30면: “我曰: 信使之來, 非特爲定稅, 爲奉國書, 而定稅則, 自我國可以自行矣. 其稅之適重適輕, 我未與聞.”

49) 「談草」 31면: “彼曰: 使臣若有專權之命, 則我可與之結定稅約, 而今也, 兩國之民, 商利來開, 且多無限弊竇. 若更重其稅, 必有閉店撤還之弊. 貴國必欲重其稅, 則我姑許之, 至有紛紜之時, 我政府, 豈無干涉乎?.....”

50) 「談草」 32면: “我曰: 關稅之法, 非利其稅金, 欲防我有用物之濫出, 禁彼無用物之輸入, 權輕重,.....”

#### IV. 조(朝)·청(淸)의 일본 견제 양상

「담초」의 일·청 인사와 나는 대화 내용에서 드러나는 전반적인 어윤중의 시각은 서양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을 회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어윤중은 일본의 개화 방식을 참조하기 위해 재정 정책과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면서 급진적인 개화로 인해 외채에 허덕이는 일본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반해 서양 기물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익히면서도 무분별한 도입을 지양한 중국의 방식에는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서분: 외국의 방식을 빌려 자강을 도모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바둑을 둘 적에 한 수 먼저 두는 사람이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윤중: 삼가 말씀을 들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감히 이웃나라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서양의 방식을 배웠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빠른 개화를 바둑을 먼저 둔 사람에 비유하고, 이웃 나라를 업신여기는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물론 어윤중이 당시 조사시찰단의 다른 조사들에 비해 일본에 우호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지만 청·일 관계에서는 일본보다 청국을 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청의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일본을 함께 견제하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아마 조선 내부에 팽배했던 일본의 급진적인 개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탓도 있겠으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본의 제도를 귀감으로 삼되 재정난을 겪는 일본의 사태를 경계하지는 인식에서 비롯된 양상으로 보인다.

이홍예: 서양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잘 활용하자, 이를 고심하던 일본 사람들이 마침내 정묘한 부분을 배웠으니 그들을 경시할 수 없음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강(紀綱)이 크게 문란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아니니, 이는 유럽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어윤중: 저들이 서양 사람들의 정묘한 부분까지 어찌 터득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강령(綱領)이 비록 문란하다고는 하지만 막부(幕府)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보다 낫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저들을 논의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홍예: 광견(狂犬)과 같이 사람 물기를 가장 좋아하는데 물리면 독이 퍼집니다.<sup>51)</sup>

위의 대답은 빠른 개화로 서양의 문물을 도입한 일본의 상태를 논한 부분이다. 서양 기술의 정묘한 부분을 따라 배웠음을 인정하면서 문란한 기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어윤중의 공식 기록물인 「수문록」, 「재정건문」은 물론 조선에 앞서 개화한 일본의 방식을 참조하기 위한 시찰 기록이다. 그러나 이 당시 「담초」에 나타난 어윤중의 태도는 서구 문물을 도입하여 자국에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본보다는 청의 양식을 따르고자 한 것처럼 보인다.

하여장: ……해가 저물었으니 고별하기를 청하고 뒷날에 다시 더 청합니다. 말한 내용은 일본인들이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윤중: 소생은 종이 한 장으로 남의耳目을 번거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sup>52)</sup>

하여장과 이야기를 마치고 작별을 고하는 대목에서는 대답 내용을 일본인들이 알지 못하게 하지는 당부와 다짐은 청과 함께 일본을 견제하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준다. 어윤중은 조선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국과 오래 친교(親交)를 유지해왔음을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청에 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본방은 중국과 지금까지 서로 함께한 날이 다른 나라의 날보다 배나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일본에 가서 그 정황을 살펴보고, 이제 중국에 와서 여러 대신들을 뵈고 가르침을 청하고자 한 것입니다.<sup>53)</sup>

그동안 어윤중의 행력과 정서된 자료를 근거로 종래의 어윤중 연구는 개화에 있어 일본의 방식을 추구하고 도입한 것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담초」에 기술된 대답 내용은 어윤중이 일본보다 청을 우호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내보이며, 이는 당시 어윤중에게 청국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1) 「談草」 63면, “李曰: 西人, 好利好用, 苦心日人, 竟能師其精到處, 未可輕視, 人皆知之. 特綱維太紋, 似經邦之道, 此則不逮歐州遠矣. 我曰: 彼安能得西人之精到處? 然而其綱維, 雖曰紋矣, 勝於其幕府秉權之時矣. 西人論彼, 以爲如何? 李曰: 有類瘋犬, 最好咬人, 咬則有毒. 我曰: 不被其咬可也. 制之當以何道?”

52) 「談草」 16면: “何曰: 日晚請告別, 他日更請益也. 所談不可與日人看. 我曰: 小生未嘗以片楮, 煩人耳目.”

53) 「談草」 53면: “我曰……本邦之於中國, 至于今日, 相與之際, 倍於他日. 故所以先往日本, 探其情形, 今來中州, 欲謁諸位大人而請教也.”

일본에서 수용한 서구의 선진 문물과 그들의 개화방식을 배우기 위해 조선의 사절단으로서 일본에 파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은 청과 함께 일본을 견제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을 청의 인사들과 대담하면서 대담자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상대적으로 일본을 폄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공식 문서라 할 수 있는 「담초」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어윤중의 평소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한론(征韓論)이 대두된 시기에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성해진 일본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절영도를 해군 기지로 삼으려는 일본의 군사적 침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어윤중의 입장에서는 청에 의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881년의 「담초」는 공개를 위한 공식적인 기록물이 아니라 참조나 정리에 앞서 기술된 사적 기록으로 다른 「담초」와 달리 어윤중의 개인적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어윤중은 후에 급변한 동아시아의 정세와 힘의 논리에 의해 친청(親淸)에서 친일(親日)로 돌아서게 되는데, 위와 같은 그의 태도를 두고 친청과 친일 또는 급진과 온건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정세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던 당시 시찰단원으로서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상황을 접하고 조선의 처지에 적합한 최적의 개화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일본과 청국을 오갔고 일본의 정책을 참조하면서도 견제했던 어윤중의 모습은, 앞서 개화한 일본과 청국을 전철로 삼아 개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폐단과 불합리함을 면하기 위한 최선의 시대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어윤중은 1881년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다른 조사들이 당해 7월에 먼저 귀국한 이후에 일본에 남아 재정 상태와 외교 현안을 논의하고, 청으로 건너가 초상국(招商局)과 제조국(製造局)을 시찰한 뒤 12월에 복명하였다. 조사들이 조선으로 돌아간 직후에 일본에 남은 어윤중이 작성한 「담초」는 그가 1881년 윤7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사시찰단으로 활동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외교를 담당하는 인사들과 나누었던 대담 기록이다. 이 기록은 조사들이 돌아간 이후의 일본 정황이 드러나 있고, 청·일 양국 인사들과 나눈 대담이 모두 실려 있어 양국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인 가치를 가진다.

어윤중의 「담초」 중에 초고와 정서한 원고의 구분은 그가 1883년에 서북경략사로 활동하면서 기록한 다른 「담초」와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1883년의 「경략사여중국위원오담초」와 1881년의 「담초」가 필사 형식에 있어서 다른 양태를 보이는 것은 「경략사여중국위원오담초」는 필담 내역을 재정리한 결과물이며 1881년의 「담초」는 아직 정서하지 않은 초고로 공식적으로 내보인 자료가 아님을 밝혔다.

또한 종래의 연구에서 어윤중이 1881년에 영선사 김윤식과 합류하여 이들과 회담했다고 알려진 것은 재고해야 할 부분으로, 어윤중은 김윤식이 당도하기 전인 10월 중에 이홍장을 별도로 만났으며 어윤중이 조선으로 떠난 뒤에야 김윤식이 이홍장을 만나 회담을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윤중은 일본에서 주일 청국 인사들과 일본의 재정 상태·진보된 신문·조선 유학생에 대해 대담을 나누었으며, 상해로 건너간 이후에 양무과 관료들과 부국강병책·경전의 실용화·상업 및 선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일본에서 주일 청국 외교관과 일본의 정세에 대한 논의를 주로 이야기하였으나, 상해(上海)와 천진(天津)에 도착하여 양무과 인사들과 나눈 대담에서는 청의 서구 문물 수용 양상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어윤중이 청국 관료들과 나눈 대담은 개화 후 일본의 정세나 문물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는 반면, 일본 관료와 나눈 대담은 관세나 절영도의 군대 주둔 등 직접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었다. 이후 어윤중의 양국(兩國) 시찰 경험은 이후 조선에서 개혁을 추진할 때 탁지부 대신으로서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다.

어윤중은 청국 관료와 함께 일본을 견제하기도 하는데, 대담에서 드러난 세 나라 간의 미묘한 관계와 외교인사의 태도는 시찰·견문록과 같이 객관적으로 서술된 시찰단의 제출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소이다. 일본과 청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상황과 이를 인식한 어윤중의 태도가 대담 내용 곳곳에 나타나 있다. 이 당시 청에 협조적이었던 어윤중은 후에 국제 정세에 따른 힘의 논리에

의해 일본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일본을 귀감으로 삼아 조선 정부에 개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할 입장과 조선에 개화를 요구하는 강성한 이웃 일본의 경제적 외압을 견제해야 할 입장에 선 어윤중의 고민과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881년 「담초」의 특징과 구성을 파악하고 대담 내역에 나타난 당시 조·청·일 세 나라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후 관련된 다른 담초와의 비교 연구나 어윤중이 중점에 두고 있었던 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는 작업을 통하여 정치하고 심도 있는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 金綺秀, 『일동기유(日東記遊)』.  
金允植, 『운양집(雲養集)』. 『韓國文集叢刊』 第328輯.  
\_\_\_\_\_, 『천진담초(天津談草)』.  
魚允中, 「담초(談草)」.  
\_\_\_\_\_, 「서정기(西征記)」.  
李鑣永, 『일사집략(日槎集略)』.  
朴戴陽, 『동사만록(東槎漫錄)』.  
『(國譯)海行摠載』 10. 韓國古典翻譯院, 1985.  
『(國譯)海行摠載』 11. 韓國古典翻譯院, 1982.  
『魚允中全集』 영인본. 韓國學文獻研究所, 1979.  
「從政年表·陰晴史(全)」. 『韓國史料叢書』 第六, 國史編纂委員會, 1971.

### 2. 단행본

- 李光麟, 「一齋 魚允中」. 『開化期の人物』, 연세대출판부, 1993.  
허경진, 『영친과 조선통신사: 한일 간의 벽을 허물다』. 보고서, 2014.  
허동현,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 당대, 1999.  
\_\_\_\_\_, 『조사시찰단관계자료집』 13. 국학자료원, 2000.  
\_\_\_\_\_, 「어윤중, 『수문록』·『재정건문』」. 『韓國史市民講座』, 일조각, 2008.  
후마 스스무 외,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8.

### 3. 논문

- 강선숙, 「一齋 魚允中 研究」.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金康植, 「개항기 해항도시 부산의 絶影島嶼 설치와 운영」. 『역사와경계』 제90집, 부산경남사학회, 2014, 223-256쪽.  
김수경·김연중, 「조선시대 한일(韓日)·한중(韓中)외교 필담·창화에 나타난 『시경(詩經)』 인식과 원용(援用)」. 『中國語文論叢』 제53집, 중국어문연구회, 2012, 227-252쪽.  
金在勝, 「절영도왜관(絶影島倭館)의 존속기간과 그 위치」. 『東西史學』 제6·7합집, 한국동서사학회, 2000, 83-111쪽.  
김지영, 「魚允中の 經濟思想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문순희, 「1881년 조사시찰단의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 차이: 『日東錄』, 『東行日錄』, 『東京日記』를 비교하며」. 『열상고전연구』 제53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59-89쪽.

- 아이 사키고,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 연구(1876-1883)」。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정다영, 「개항후 조선의 대외기구 개편과 거류 일본인 대책」。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 鄭玉子, 「紳士遊覽團考」。 『歷史學報』 第27輯, 1965, 105-147쪽.
- 정우봉, 「日本通信使 朴安期의 생애와 에도 지식인과의 교류에 대하여」。 『古典文學 研究』, 2015, 383-415쪽.
- 주승택, 「강위(姜瑋)의 연행록(燕行詩)에 나타난 한중(韓中) 지식인의 교류양상」。 『한국문화연구』 제11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7-43쪽.
- 이미현, 「魚允中 研究」。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병천, 「개항기 외국상인의 침입과 한국상인의 대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이효정, 「1881년 조사사찰단의 필담 기록에 보이는 한일 교류의 한 양상」。 『한국문학 논총』 제56집, 2010, 103-128쪽.
- 하지영, 「개항기 조선상인과 일본상인 간의 자금거래와 곡물유통: 부산경상지역 ‘兩民交涉債案’의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부경역사연구소, 2007, 53-89쪽.
- 한임선, 「장서각 소장자료 『談草』를 통해 본 어윤중의 개화사상」。 『장서각』, 2010, 187-212쪽.
- 허경진, 「수신사를 통해 본 개화기 한시의 위상: 제1·2차 수신사의 창수시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8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97-116쪽.
- \_\_\_\_\_, 「수신사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태도 차이」。 『열상고전연구회』, 열상고전연구회, 2016, 29-58쪽.
- 許東賢, 「1881年 朝鮮 朝士 日本視察團에 관한 一研究: “聞見事件類”와 《隨聞錄》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52집, 한국사연구회, 1986, 97-151쪽.
- \_\_\_\_\_, 「어윤중의 개화사상 연구-온건개화파 내지 친청사대파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韓國思想史學』 제17집, 한국사상사학회, 2001, 435-474쪽.
- \_\_\_\_\_, 「朝士視察團(1881)의 일본 경험에 보이는 근대의 특성」。 『韓國思想史學』 제19집, 한국사상사학회, 2002, 507-537쪽.

## 국 문 초 록

어윤중의 필담은 1883년에 청(淸)나라의 인사들과 나눈 대담을 기록한 텍스트 3종(種)이 『어윤중전집(魚允中全集)』에 이미 실려 있다. 장서각(藏書閣)에 소장된 「담초(談草)」는 이보다 앞선 1881년에 그가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일본과 청을 오가면서 청(淸)·일(日) 양국의 외교 담당 인사들과 나누었던 대담을 기록한 것이다.

어윤중은 1881년 7월에 먼저 귀국하기 시작한 조사(朝士)들을 일본에 남아 전송하고 다음 달인 윤7월부터 「담초」를 작성하였다. 1883년에 기술된 「담초」와 필사된 형태를 비교하여 아직 공시(公示) 목적으로 정리된 텍스트가 아님을 밝히고, 「종정연표(從政年表)」에 기록된 「서계(書啓)」의 내용을 근거로 12월에 복명(復命)할 때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어윤중은 청나라의 관료에게 개화 후 일본의 재정 상태, 부국강병을 위한 무력 증강, 실용적인 학문의 효용, 상업 운영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함께 논의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 관료와 나눈 대담은 구포(九浦)에서 일어난 쟁투(爭鬪) 사건, 절영도(絶影島)를 둘러싼 군사적 의견 대립, 동맹 및 세관(稅關)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었다.

일본의 현황에 대하여 청나라의 관료와 주고받은 대담 양상을 통해, 조선과 청나라가 일본을 견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청·일 두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과 나눈 대담이 기록된 1881년의 「담초」는, 조선의 눈에 비친 양국의 정세를 비교하기에 좋은 자료가 된다.

**투고일** 2018. 3. 20.

**심사일** 2018. 4. 10.

**게재 확정일** 2018. 5. 30.

주제어(keyword) 담초(談草, Damcho), 어윤중(魚允中, Eo Yunjung), 개화(開化, Enlightenment), 사행(使行, Envoy's visit), 필담(筆談, Conversation by writing), 수신사(修信使, Korean goodwill delegations to Japan), 대담(Conversation), 김윤식(金允植, Kim YunShik)

## Abstracts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o Yunjung' 1881 Damcho<sup>54)</sup>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Korea, China, and Japan as Revealed in the Conversations

Kim, Gi-yeop

Three sets of writings drawn from Eo Yunjung's Conversation by writing, which recorded in 1883 his conversations with dignitaries of the Qing Dynasty, are included in the Complete Works of Eo Yunjung (魚允中全集). The initial texts of Damcho (談草) housed in the Jangseogak Library accounted on the conversations that he had with diplomats of Qing and Japan, travel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his stay in Japan as a member of the Josasichaldan (朝士視察團)<sup>55)</sup> in 1881.

After seeing off his fellow envoys returning home in July, 1881, he remained in Japan and began writing Damcho the next month, the lunar leap month of July. In comparison to the transcribed version of 1883, it is clear that the 1881 initial texts were not in the format of public notice yet. Further, on the basis of the description on Seogye (書啓)<sup>56)</sup> in Jongjeong yeonpyo (從政年表), it is presumed that they were not put together as an official report for submission upon his return to Korea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Eo Yunjung consulted and discussed with Qing officials on various topics, including Japan's financial conditions after the Enlightenment, military force reinforcement for enhancement of national prosperity and defense, utility of practical studies, and operation of commerce. In contrast, what he discussed with Japanese officials were mostly sensitive issues, such as a combat broken out in Gupo (九浦), conflicting military views over Jeouyoungdo, political alliance, and customs.

His conversations with Qing officials concerning Japan's status also revealed that both Choseon and Qing held Japan in check. The 1881 Damcho, containing the views expressed by dignitaries of Qing and Japan during the conversations, serves as a good source to understand and compare the situations facing the two countries, particularly, from Choseon's standpoint.

---

54) Damcho (談草): Discourse written for the record

55) Josasichaldan (朝士視察團): The group of envoys dispatched to Japan

56) Seogye (書啓): Report of mission

